

1996년 11월 11일 월요일

□ 동문제언 - 학내 차량주차를 바라보며

‘모교가 밍다, 싫다’

상아탑내 교통난장판...차없는 세계유일의 교정 만들자



안병준

(서울신문 특집기획 부장·76년 신방과출)

나는 모교가 밍다. 초등·중·고교는 사랑하지만, 대학은 싫어졌다.

그렇게 마음이 변하니, 조영식학원장을 비롯한 모교의 교수·직원들도 보기 싫어지려 한다. 재학생 후배들까지도.

그것은 ‘별레’때문이다. 나는 별레가 아주 징그럽다. 지겹다. 나쁜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별레를 싫어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별레는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딱정벌레’다. 졸업 20년 만에 모교 대학원을 시작했다. 나는 그 이유로 학교를 찾았다. 고향산 정기가 서린 싱그러운 캠퍼스—그곳을 거쳤기에, 나는 거친 세상의 풍

상을 견디고 있다. 그리고 항상 모교를 어머니처럼 그리워 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온 골드몬트처럼, 아름답고 포근한 모교에 기대고 싶었다.

그러나 모교는 싹판이었다. 온 캠퍼스는 노랑·흰색의 규제선이 곳곳에 그어져 있다. 가운데 큰길은 딱정벌레들이 판을 치고, 사람들은 갖길같은 좁은 인도를 눈치보며 오간다. 아침에 출근한 수많은 별레들은 정관같은 요소요소를 차지하고 하루종일 버티다.

운송길의 ‘완장’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수많은 계복(주차관리요원)들이 호르라기 요란하게 불어제긴다. 몇걸음 옮기다 보면 ‘보행자 주의!’라는 입간판들이 앞을 가로막는다.

총학생회는 “정문 옆 보행자 통로 신설” “주차장 임대료 전액 복지기금화”라는 주제가 빛나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학생들은 차량들에 의한 캠퍼스 정원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들이 설정해야 할 주제는 ‘캠퍼스에서의 전차량 추방’ 또는 ‘무차(無車)캠퍼스’가 아닐까?

도대체 상아탑이란 무엇인가. 교수들이 학문을 하고, 학생들이 인격도야·지식연마를 하는 곳이다. 그러기 위해 상아탑은 조용하고, 여유롭고, 아늑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그런데 세계

적으로 유명하다는 경희캠퍼스는 청계천 교통난장판처럼 되어 있다. 캠퍼스가 시중과 같다면, 굳이 대학이라 부를 이유가 없다.

학원장과 모든 교수·직원·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모든 차량들을 몰아내야 한다. 딱정벌레들이, 고향산 정기를 끊어놓고 있다. 등용문과 교신탈·선승문을 가로막는다. 매년과 소음으로 나무와 꽃들을 병들게 한다. 교수·학생·동문 등 모든 경희인들을 짜증나게 한다.

캠퍼스에 차량들이 없는 것을 한번 상상해본다. 교수와 학생들이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담론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캠퍼스의 4계절은 항상 아름답다. 모든 사람들은 여유롭게 걸으며 사색한다. 학문은 깊어가고, 경희인들은 ‘웃는 사자’다운 표용력과 기상을 키운다. 경희대학교는 지금보다 더 훌륭하게 성장한다.

국내외 언론들은 “경희대가 세계에서 유일하고 훌륭한 차 없는 캠퍼스”라고 칭찬한다. 그리고 부러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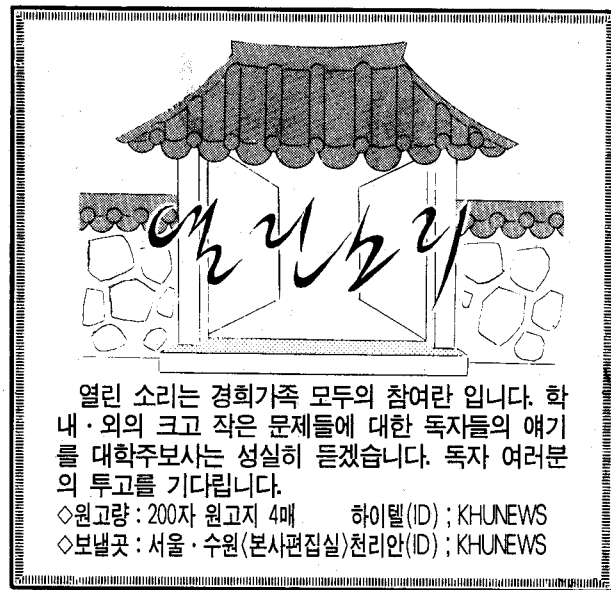
딱정벌레들을 캠퍼스에 한발 짚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어찌 될까? 그것은 전혀 걱정할 바 못된다. 딱정벌레들은 자생력이 강해 시중에서 다알아 살 아간다. 학문 하고 배우는 사람

들은 그런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산이 있어 캠퍼스밖에 주차장 또는 주차빌딩을 지으면 금상첨화다.

그러면 노교수와 장애인, 국내의 방문객 등은 어떻게 대우해드리는가? 학교안에 소리없고 매연없는 밍데리카를 서둘러 운운하면 된다. 20여대 정도의 서둘마다에는 꽃장식을 해 도 좋고, 멋진 그림들을 그려도 좋다. 유유자적 걸어가는 사람들은 서둘을 탄 분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준다. 서로서로 미소짓지 않을 수 없다.

학교 안의 서점·식당과 기타 시설은반이 필수적인 곳은 또 어떻게 하나? 마찬가지로. 화물서들을 운행하면 된다. 덩치 큰 딱정벌레는 더욱 지겹다. ‘비둘리아’와 같은 대형공사가 있을 경우는? 그건 어쩔 수 없다. 공사현장 한모퉁이 쪽에 길을 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공사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다.

‘딱정벌레 없는 세계유일의 캠퍼스’—그렇게 되면, 나는 모교를 다시 사랑할 것이다. 현재 나 과거(졸업생)의 모든 경희인들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희는 지금 ‘별레’ 없는 캠퍼스가 되었다.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가.



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4매 하이텔(ID) : KHNEWS
○보낼곳 : 서울·수원(본사편집실/천리안(ID) : KHNEWS

전산강의 본래 취지 못따라가

전산 시스템 수리 시급해

우리학교에서는 전산학과 영어회화 필수교과목(CRS)이다. 졸업하기 전까지 한번은 꼭 들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필자가 수강한 전산학개론 수강인원은 대략 40여명이 넘었지만, PC의 수는 수강인원보다 적은 35대 정도에 불과했다. 문제는 수강인원이 PC의 수보다도 많다는게 아니라, 그나마 부족한 PC의 30퍼센트 가량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고장난 PC는 그냥 내버려둬 2명에서 PC 1대를 갖고 수업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문제점은 또 있다. 수강신청시 전산학개론 I을 수강하지 않으면 전산학개론 II를 들을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학생중엔 PC를 거의 완벽하게 마스터한 학생도 있고, 컴맹에 가까운 학생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같은 수업을 듣게 된다

는 것은 학교측의 크나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요즘은 실생활에서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사무실에서 윈도우95를 사용한다. 하지만 전산실에 있는 컴퓨터는 486임에도 불구하고 윈도우95를 깔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올려져 자막기 식으로 실생활에는 별로 쓰이지 않는 것들을 배우고 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크게 신경이 쓰이는 것도 아닌데 학교측에서 약간의 관심만 가져준다면 보다 더 유용하고 실질적인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루속히 학교측의 바람직한 조치를 우리모두 기다릴 뿐이다.

김동혁
(문리대 생물 1)

잠깐 인터뷰

힘이 있는 노래,
꿈이 있는 노래

우리신문은
-인권복지 위원
회에서 주최한
하반기 경희강
좌 “세상을 이
기러 가는 사
람들”의 첫날
강연을 맡은
정태준씨를 만
나보았다.
(편집자)



정태준
(가수)

—지난 6월 음반 사전 심의 철폐이후 요즘 근황은?
—여러군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청년노동자단체 초청으로 일본에도 다녀왔구요.
—음반 사전 심의 철폐운동에 앞장서게 된 계기는?
—첫번째 앨범인 시인의 마을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구요. 결정적으로 나선 계기는 지난 90년 새 음반 관계법이 사전 심의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된 방향으로 바뀌고 나서 부터입니다.

—초기의 노래와 비교할 때 요즘 노래에 발표한 두음반(공룡의 사전심의를 수정시지를 거부한 음반 “아 대한민국” “92년 장마, 종로에서”)는 상당히 사회적이고 참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시선을 사회로 확대한 이유는?

—80년 광주항쟁이후 나온 저항적이고 참여적인 문화를 접하면서 예술이 사회적인 대응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노동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구요. “누구를 위해서 노래하는가?”라는 고민이 머릿속에 켜트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가진 힘이 엄청나고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노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일구어 내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바라는 세상을 그려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회적 전망이 없는 시대에는 이보다 오늘의 명임을 밝혀내는 일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 모순이나 소외받는 이들의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하나더 바랄 것이 있다면 내노래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과 소외받는 이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최수정기자)

朔風

전 대한민국의 한 사람입니다. 한 때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있는 줄로 착각도 했습니다. 지금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민주화의 맨앞에서 힘차게 행동한 적도 있었으며 시대를 아파하며 이상한 행동도 한 기억이 머릿속 한구석에 남아있는것 같기도 합니다. 때론 바바리코트의 낭만을 지칭하는 대명사의 하나이기도 했던 내가 지금에와서 왜 이런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홀로 남아 있는 기분입니다.

저는 이제 민주화 일꾼도 시대의 지성인도 아닙니다. 아니 계속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소망했지만 저에 대한 이미지는 이미 규정되어 버린것 같습니다.

저의 직업이었던 공부도 이제하기

싫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를 찢어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부란, 아니 학문을 탐구해야한다는 당위는 더이상 설득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요즈음 각일간지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사들은 저의 모습을 규정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폭력배로서, 쾌락만을 쫓는 한량으로서, 예절을 전혀 모르고 행동하는 한 젊은이로서 저의 모습은 말그대로 공인된 백수의 이미지 이상도 이하도 아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영어, 학문 등 무엇하나 제대로 할수없는 나는 이제 직업을 바꿀 염두조차 낼수 없습니다.

사회가 요구한다면 이와같은 능력은 지체가 위해 노력할수는 있지만 나의 젊음을 비추어볼때 너무나 현실적인 생각이 들어 주저되기도 합니다. 아니 시대가 요구한다면 그렇

어느 패배주의자의 독백

게 해야되겠지요. 삶은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저에게는 이제 젊음을 담보로해서 할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할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국가’를 이끌 어 나갈 재목’이라는 형이상학적인 말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간 뒤입니다.

저의 직업은 대학생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희망도,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시대에 휩쓸려, 대세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목적 없는 길을 정처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요즈음 시대의 패용아일 정도로 평가되는 이 직업을 때려치울 마음도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그러나 확실한 대안이 없기에 비난받는 엑소더스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대학생이란 것이 이제 어디에 가

서라도 자랑스럽게 내세울 직업은 아닙니다.

만일 저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다면 대학생같은 직업은 선택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나와 같지 않으면 적어되는 이분법적 사회에서 비판해야만 하는 위치가 이렇게 힘든걸일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다시는 비판하는 위치에는 서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의 존재가치가 없어진 지금 저를 어떤 방법으로든 비난해야만 하는 목소리는 나에게서는 더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이기에 목살해야만한다는 논리는 21세기를 여는 것이 아닌 20세기를 닫아버리는 결론을 낼 것입니다.

아무쪼록 열심히들 사시고 저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추억이나 되뇌이겠습니다.

(세바리)

사 직 서

성명: 김성훈
소속: 경영혁신팀
직위: 사원
입사년월일: 1996. 1. 1
퇴사년월일: 1996. 1. 1

참기 본인은 하기와 같은 사유로 서기 1996년 1월 1일자로 (신직, 휴직, 복직)코저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저는 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회사에 들어왔다가 보다는 저를 개발하고 저의 미래를 찾기위해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몇몇 안되는 성취이였지만 이회사에서 저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96년 1월 1일

銀龍그룹

본인 김성훈

아깝다, 좋은 인재!

그렇게 능력있는 사람이 벌써 그만두다니...

인재들의 능력을 120%개발하고,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업-삼양그룹의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많은 인재들이 학교에서는 이룰 수 없는 자신만의 꿈을 찾기 위해 회사에 입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꿈을 이루어주는 회사는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삼양그룹은 인재들이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에 국내 어떤 기업보다 더 많이 인재양성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동남아 해외연수등의 신입사원교육으로, 외국 문화, 생활습관, 예술까지 폭에 익히는 Future Leader교육으로, 1년간 자유롭게 외국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는 지역전문가 양성교육으로, 해외 우수 대학의 MBA과정 교육으로, 선진경영기법, 신규사업, 국제금융에 대한 Global Manager교육으로 -삼양그룹의 인재를 위한 투자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세계 속의 초일류기업-삼양그룹은 이미 그 큰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 섬유부문 • 원사에서 패션까지 수직계열화 추진
- 세계 5대 폴리에스터 메이저 진입 추진
- 화학부문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첨단고분자화학분야 강화
- 폴리카보네이트, TPA생산능력 확대
- 환경·엔지니어링 부문 • 폐수처리, 대기오염방지설비 등의 환경사업 강화
- 플랜트 건설 사업의 중점 추진
- 건강산업 부문 • 세계 최초로 항암제 제네콜의 대량생산 성공
- 폐회계정 개발 및 전문의약화학 설립 추진
- 정보통신 부문 • 인터넷 구축, 공장자동화 사업, 화상회의 사업
- 국내 유선방송사업과 미국대 무선 CATV사업

삼양그룹

• 사업영역: 섬유, 식품, 사료, 화성, 기계, 엔지니어링, 의약, 정보통신, 금융, 연구개발, 해외사업, 육영